故 고현철 교수

일시 - 2023년 8월 17일 (목) 11 시 주최 - 고현철교수추모사업회



눈

눈이 녹으며 속이 내비친다 공중에서 발 구르며 흩어지는 눈 낯익은 저 골짝 엉긴 눈 모두, 낮은 곳으로 팽팽한 풀의 생기가 되어 풀려내린다. 아, 우리들 좀 더 아래로 손 건낼 때 반짝이는 싱싱한 힘 이 깊디 깊은 출렁거림

고현철 시집, 『평사리 송사리』 중에서

▮추모식

可

일시 2023년 8월 17일 (목) 11시 **장소**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 **주최** 고현철교수추모사업회

- 사회 이창희(부산대학교 인문대학 부학장)
- 개식 이준규(고현철교수추모사업회장)
- 국민의례
- 묵념
- 추모영상 상영
- 故고현철교수 소개
 - 허순우(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장)
- 추모사업 경과보고

• 추모사

- 차정인(부산대학교 총장)
- 송기인 신부(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상임고문)
- 유진상(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)
- 김정구(부산대학교 교수회장)

• 추모시 낭송

- 제목: 눈 (고현철 시집, 『평사리 송사리』, 전망, 2013)
- 김준서(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생회장)

• 추모 공연

- 냉정과 열정사이 OST 현악4중주
- Nella fantasia 소프라노 강수진

〈연주자〉

바이올린 한운지, 송하늘 비올라 이상혁 첼로 장선우

• 폐식



l 허화 **장소** 대학본부 1층 앞

Б

ե

평사리 송사리

마음도 머리도 아주 무게를 더할 때 혼자 찾은 고향 같은 하동 평사리. 내가 발 딛고 있는, 토지 서희는 어떻게 견뎌왔던가. 힘든 세월 비틀어진 나무를 본다. 바람 찬 겨울일수록 잔잔한 개울 흑싸리 홍싸리 화투패처럼 쉽사리 휩쓸리는 나를 아랑곳하지 않고 살얼음 얼음물 속 흙자갈 속을 자갈자갈 헤치며 떠다니는 평사리 송사리 같은 것. 내 어찌 여기서 끊겠는가. 그동안 어렵사리 길들여 온 지겨운 이 길을 흙먼지 날리는 이 길을 헤엄쳐 가지 않겠는가.

